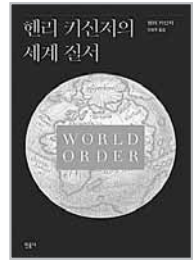


개편되는 국제 질서, 지금 우리 무엇을 해야하나

헨리 키신저의 세계질서

헨리 키신저 지음



“우리에게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 우리의 이익만이 영원할 뿐이며, 그 이익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19세기 영국 정치가 헨리 존 파머스턴 경의 말이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새롭게 세계질서가 개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국제정치의 변화를 대변하는 명언이다.

17세기 신교(프로테스탄트)와 구교(가톨릭) 간에 종교전쟁이 벌어졌다. 바로 ‘30년 전쟁’(1618~1648)이다. 전쟁이 종지부를 찍기 위해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 참전국들은 독일 베스트팔렌 지역 48km 떨어진 두 도시에 모여 조약을 체결했다.

가톨릭 세력은 윈스터, 신교 세력은 오스나브뤼크에서 만났다. 일련의 협정들을 통해 ‘베스트팔렌 평화조약’(Peace of Westfalen)을 도출했다. 이는 가톨릭 제국으로서의 신성 로마제국을 사실상 붕괴시키고, 주권 국가들의 공동체인 근대 유럽의 정치구조가 나타나는 계기가 됐다. 현재까지 ‘국가를 기초로 한 국제질서의 토대’로서 남아있다.

최근 출간된 ‘헨리 키신저의 세계질서’는 세계질서를 테마로 역사와 국가간 외교전략, 국정 운영기술에 대한 기념비적인 연구결과를 집대성한 책이다. 올해



400여년전 독일 베스트팔렌에서 체결된 평화조약인 ‘국가를 기초로 한 국제 질서의 토대’로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17세기 네덜란드 풍속화가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가 그린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93세(1923년생)인 저자는 닉슨, 포드 행정부에서 대통령 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을 지냈으며 세계적인 외교전략가로 불리는 인물이다.

저자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 질서는 아직까지는 결코 존재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로마제국, 몽고제국 등 역사상 수많은 문명이 등장해 저마다의 관점에서 세계를 세우고자 했지만 모두 보편적인 동의를 얻지 못했다. 그중 유럽, 이슬람, 중국, 미국에서 세워진 거대한 세계 질서가 세계 역사를 좌우했다.

평생을 정책입안자이자 외교가로

살아온 저자는 세계 역사를 이끌어온 각 국가의 지난 역사를 꼼꼼히 되짚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질서의 제약도 초월하는 세력들이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진다. 미·중 수교(1979년)에 앞선 밀사 등 수십 년간 미 외교 최일선 현장을 지킨 저자의 경험은 문장 곳곳에 녹아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 G2 국가가 세계질서를 좌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 첨예한 북한의 핵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

제로 어느 때보다 현명한 선택을 해야하는 때이다. 이 책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지속가능한 국제질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난 역사의 통찰을 통해 분명히 시사한다.

저자는 역사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끝맺는다. “아주 오래전, 젊은 시절에 나는 나 자신이 ‘역사의 의미’에 대해 공언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자신만만했다. 이제 나는 역사의 의미는 선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임을 깨달았다.”

〈민음사·2만5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이상하게 파란 여름=‘에드워드 틀레인의 신기한 여행’의 작가 케이트 다카밀로의 소설. 1975년 미국 플로리다를 배경으로 각자의 목적을 품고 ‘리틀 미스 샌트럴 플로리다 타이어’ 대회에 나가 상금을 받기 위해 모이게 된 세 소녀가 보낸 어느 여름에 대한 이야기이다. 저마다의 환경과 아픔을 가지고 우연찮게 모이게 된 세 소녀가 서로에게 조금씩 곁을 내어 주며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해 눈뜨게 되고, 결국 서로를 구하게 되는 모험이 펼쳐진다. 〈비룡소·1만3000원〉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기업이나 조직, 국가가 퇴보해갈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조직이 싫으면 떠나거나 남아서 항의하거나 아니면 충성을 다하는 게 인간에게 주어질 선택일 것이다. 책은 ‘이탈’, ‘항의’, ‘충성심’ 세 가지 개념을 통해 수많은 크고 작은 조직의 퇴보 상황을 해부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개념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다양하게 반응 가능한지, 이들을 겪을 내지 혼용할 때 실제 의도와 얼마나 다른 역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살핀다. 〈나무연필·1만5000원〉

▲인생 레시피=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엘레노어는 갑자기 유방암 진단을 받는다. 치료받는 와중에도 여덟 살인 딸 벨리사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도록 병을 숨기느라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생의 마지막을 살면서 딸의 성장기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에 딸에게 주는 레시피를 쓴다. 함께 만든 추억의 음식 레시피에는 딸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행복한 기억, 자라나는 딸에게 여자 대 여자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는다. 〈무소외출판·1만4000원〉

▲살아남은 자들의 용기=200여개국에



서 12억 시청자를 끌어모은 TV 프로그램 ‘인간과 자연의 대결’의 진행자 베어 그릴스. 영국육군공수특전단(SAS) 복무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을 누비며 갖가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지구에서 가장 험악한 곳들을 탐험하는 탐험가다. 베어 그릴스에게 생존은 탐험 정신과 기개(그릿)다. ‘12시간’, ‘론 서바이버’, ‘인브로큰’ 등 영화로도 제작된 ‘진짜’ 생존 이야기 25편을 들려준다. 〈처음북스·1만5000원〉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공유제 시민배당이 어떻게 중산층을 살리고, 균형 잡힌 자본주의로 나아가는지 그 해법을 보여준다. 저술가이자 기업가인 피터 브란스는 중산층의 몰락을 막고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유제 시민배당(기본소득)’을 제안한다.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그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해 일정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공유제에서 나오는 이익을 배당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칼마바람·1만4000원〉

어린이 책

▲해가 나를 따라와요=엄마 같은 ‘해’와 ‘해’ 같은 엄마를 통해 아이가 애착을 형성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 과정을 아이 시각에서 보여준다. 잠시, 먹구름으로 인해 사라진 ‘해’를 찾기도 하지만 한결같은 사람으로 자신을 맞이해주는 엄마의 존재를 깨닫게 되면서 다가오는 먹구름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의 힘을 배우게 된다. 〈꿈터·1만1000원〉

▲숨으로 간 몬스터=디자인 스튜디오 스티키몬스터랩과 그래픽 전문출판사 보림의 콜라보로 탄생한 첫 프로젝트. 아버지가 된 두 디자이너가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 누구를 따라 해야만 친구가 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보림·1만2000원〉

▲수수께끼 숨은그림찾기=숨은그림찾기의 특성을 초등생 학습에 접목시킨 독특한 형식의 책. 초등생에게 필요한 언어, 상



식, 역사, 수학 등의 지식을 숨은그림찾기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반복 학습을 할 수 있게 했다. 여러 나라의 수수께끼를 소재로 한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퀴즈의 답이 숨어있는 그림을 ‘숨은그림찾기’ 한 장면으로 구성했다. 〈좋은꿈·1만1000원〉

▲세계 도시 지도책=딱딱하고 복잡한 일반 지도책에서 벗어나 어린이가 스스로 그림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상상하고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고, 흥미롭게 구성된 세계 도시 지도책. 실제 지형지물의 특징을 잘 살린 그림을 지도에 배치하고, 각 도시에서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것들로 아기자기하게 구성했다. 〈풀과바람·2만2000원〉

내일은 아직 실패하지 않은 하루라 생각하면 기쁘지 않아요?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

백영옥 지음



수다쟁이 주근개 소녀 앤 설리는 정말 사랑스럽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밝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건네는 ‘빨강머리 앤’은 어릴 적 뿐 아니라, 성인이 된 이들의 마음 속에 추억으로 오랫동안 남아 있다.

‘스타일’, ‘아주 보통의 연애’ 등을 쓴 소설가 백영옥에게도 ‘앤’은 그런 존재였고, 앤과의 추억을 더듬으며 새 책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아직 너무 늦지 않

았을 우리에게’를 펴냈다.

10년전, 소설가의 꿈은 점점 멀어져가고, 인간 관계에는 실패하고, 회사에 사표를 냈던 그녀는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일본 애니메이션 ‘빨강머리 앤’을 보며 위로를 받았다.

힘들 때마다 앤의 말을 떠올리고, 듣기만 하던 말을 받아적던 그녀는 ‘앤’의 말처럼 한 번 더 실패하더라도 한번 더 오랜 꿈에 도전하고 싶었다. 다시 소설

을 읽고 다시 소설을 쓰고 그해 가을 소설가가 됐다.

“내일은, 아직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은 하루라 생각하면 기쁘지 않아요?” 작가는 ‘궁정 소녀’ 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소재 삼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따뜻한 대화를 건넨다.

소설 뿐 아니라 인터뷰 기사, 수필 등을 통해 편안한 글쓰기로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녀는 이번 책에서도 본인의 진솔한 고백, 이웃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와 책, 영화 등 다양한 소재를 통해 ‘앤’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무엇보다 지브리 스튜디오가 제작한



사랑스러운 애니메이션 ‘빨강머리 앤’의 삽화가 수록돼 있는 점도 이 책의 매력 중 하나다. 수십번 다시 책을 들춰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

〈아라떼·1만6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 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풍광을 전할뿐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참숯구이 민물장어와 숙지한 삼계탕을 개시합니다. 솔향기정식,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숙지삼계탕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참숯가마 찜질방 / 족욕탕 / 참숯구이 민물장어 & 돼지갈비 전문점 / 노래방 & 동전노래방